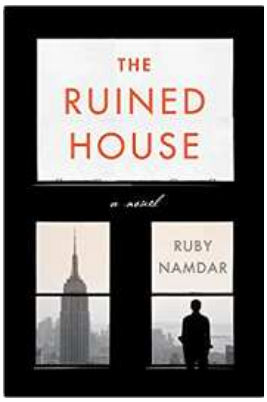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RUINED HOUSE
가제 : 무너진 집
저자 : Ruby Namdar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분량 : 528 페이지
장르 : 소설/ 종교, 가족

*** 이스라엘 최고의 문학상, 사피어 어워드*(Sapir Award) 2014*년 수상작**
***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내면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미국의 유대인들에 관한 날카로운 관찰" – 마이클 베인크라드, 「*Mosaic Magazine*」**
*** "한 남자의 인생, 그가 껍질만 남은 세상의 표면 아래에서 이미 동요해온 고대 유산들로 채워진 세상과 만나는 과정을 다룬 환상적인 작품." 『*The World to Come*』의 저자 다라 혼**

뉴욕 대학교에서 비교문학을 가르치는 교수, 자칫 저급한 패션으로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새하얀 정장과 녹색 넥타이를 멋지게 소화해내는 독특한 개성, 주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저명한 인물들에게서 느끼는 '아우라'를 느끼는 사람, 앤드류 코헨은 그런 사람이었다. 아내와 이혼한 지 8년째, 허드슨 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집에서 먼지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하고 쾌적한 공간에 홀로 앉아 음악을 듣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나 강의실에서 그저 존재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순간 모두 코헨 교수는 우아함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온 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매끈하고 고르게 유지되던 그의 삶은 2000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커다란 균열이 일기 시작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상,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에, 눈 앞에 무작위로 떠오르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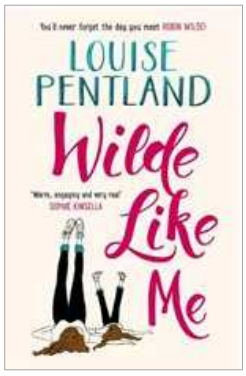
처음 그 이상한 현상을 느낀 순간은 "문화 비평, 혹은 비평의 문화?"라는 멋진 제목으로 그가 학기 첫 강의를 진행하던 도중에 난데없이 찾아왔다. 코헨이라는 사람 전체를 대변하듯 제목부터 내용까지 우아하고 세련된 강의 계획서는 학기마다 온갖 전공의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번 학기에도 수강 인원이 꽉 찬 인기 수업으로 첫 시간의 문을 열었다. 수업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거대한 힘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어 뱃속에서 강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져 노트에 미리 자필로 빼곡히 써온 인사말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대고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올랐다. 이 모든 변화는 누군가 눈치채기도 전에 번개처럼 휙 스치고 지나갔지만 혼을 쏙 빼놓은 이 짧고 강렬한 느낌은 코헨의 두 눈에 그렁그렁 고인 눈물을 분명하게 남겼다. 눈에 이런 압박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다. 코헨은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학생들은 물론 성인이 된 두 자녀들까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앤드류 코헨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문학 잡지에 글도 싣고, 수업은 개설될 때마다 수강 인원이 가득 차는 등 직업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사적인 삶도 평온 그 자체였다. 이혼한 아내와도 비현실적일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이가 자신의 반밖에 되지 않는 여자친구와도 만족스러운 관계가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코헨은 세련된 도시민,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세속적인 삶을 향유하는 유대인이라 스스로 인정해온 그에게 어느 날부터 알 수 없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 신성한 장소에서 행해지던 고대 의식의 장면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발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상한 현상이 시작된 이후, 그의 인간 관계도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 지금껏 당연하게 믿고 따라왔던 자신의 모든 믿음을 하나하나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1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특권과 명예, 윤택한 삶의 유리에 갇혀 있던 한 지식인이 겪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세밀하게 따라가는 이 소설은 현대 미국에 사는 미국인 유대인의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쓴 독특한 구성을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유대인의 믿음과 유대교의 가치를 지적, 도덕적, 영적, 정서적으로 날카롭게 조명한다. 개인의 삶을 관찰하되 누구나 겪는 개인적인 인생의 고통, 자아의 충족감이라는 이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주인공이 속한 세대,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맞이한 위기의 근원을 추적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비 남다르(Ruby Namdar)는 이스라엘의 이란 출신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에서 성경,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데뷔 소설 『Haviv』(2000)로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목 : WILDE LIKE ME
가제 : 내 이름은 와일드
저자 : Louise Pentland
출판사: Zaffre
발행일: 2017년 6월 29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로맨스, 여성소설

* ***7*월 기준 영국 하드커버 소설 베스트셀러 *1*위,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출간 *5*일 만에 *7,129*권 판매**
* **유튜브 팔로워 수 *370*만 명, 트위터 팔로워 *19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40*만 명 이상인 패션 디자이너, 뷰티 블로거의 데뷔 소설, 싱글맘과 어린 딸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 **"현실적이고 공감할 만한 문제에 직면한 여주인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읽었다." – 『*Shopaholic*』의 작가, 소피 킨셀라**

남편과 이혼하고 4년째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 로빈 와일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보조로 일하면서 친정 식구들의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유지해 왔지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로빈의 겉모습 뒤에는 순간순간 엄습하는 불안과 우울함이 잔뜩 끼어 있었다. 무엇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잠재워줄 열쇠는? 새로운 출발, 어두웠던 과거를 훌훌 털고 다시 심장이 뛰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남자를 마침내 만난 로빈은 기대가 컸던 만큼 큰 실망을 느끼고, 자신은 물론 딸아이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르는 큰 변화와 직면한다.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고,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을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외로움에 또 다시 떨게 될지언정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 서툴고 겁도 많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귀여운 싱글맘, 로빈 와일드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솔직한 고민이 시작된다.

다섯 살이 된 릴라와 다섯 번째 함께 맞이한 새해는 여느 때와 같이 평온하고 즐겁게 시작됐다. 남편은 없지만 두 사람을 불러주는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많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지만, 로빈은 시끌벅적한 파티장에서 늘 느끼던 소외감을 반복해서 느꼈다. 입가에는 예의 바른 미소를 띄우고 잘 차려 입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자꾸만 불안한 마음은 혼자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도 좀처럼 가라 앉을 줄 몰랐다.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보조로 실력을 인정 받으며 괜찮은 수입을 얻고 있고, 아버지가 너그럽게 내어주신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릴라를 번지르르한 사립 학교에 입학시키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사는 릴라의 고모가 수시로 찾아와 청소며 요리를 도와주니 사실 그리 힘들 것도 없는 삶이었지만 로빈은 4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도 이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편 사이먼과 갈라서기로 한 결정이 릴라에게 되돌리지 못할 상처를 남기면 어쩌나? 아직은 너무 어려서 티가 나지 않지만 어느 날 그 동안 쌓여 있던 불만들, 아빠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처럼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마구 토로하면 어쩌지? 이런 상상과 걱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여섯 살짜리 딸과 가족들 외에 자신을 성인 여성으로 사랑해줄 누군가를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불쑥 솟아나는 이런 감정은 로빈으로 하여금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수시로 드나들며 '괜찮은' 짝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이고 숱한 남성들의 프로필을 뒤지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면 이런 한심한 자신의 행동이 딸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어쩌나 또 다시 고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9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늘 실망만 안겨주던 온라인 데이트 상대 찾기 시도가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한껏 차려 입고 실력을 십분 발휘해 아름답게 화장한 모습으로 템즈 강이 내려다보이는 세련된 바로 들어선 로빈은 자신을 맞이하는 멋진 남성과 마주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훤칠한 미남, 테오였다.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남자, 후회 없이 사랑하고 다시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꿈이 실현된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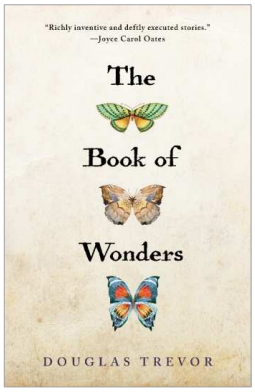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 싶은 황홀한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한다. 테오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처럼, 혹은 테오 자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모습처럼 그리 놀랍고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로빈의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고, 생각지도 못한 테오의 실체는 그리 반갑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준다. 그런데 꿈이 깨어지려 하는 실망감에 좌절하던 로빈에게 믿기 힘든 기회가 찾아온다. 뉴욕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이다. 보조에 머물면서 자신이 리드하는 일을 꼭 하고 싶었던 로빈에게 드디어 찾아온 이 일을 잡는다면 릴라와 로빈, 두 모녀의 삶 전체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은 분명했다.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친 모험이 될지도 모른다.

실패한 결혼생활의 고통에 허우적대는 로빈, 여자로서 다시 사랑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좋은 엄마, 성공한 여성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고 싶은 좋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싱글맘과 일찍 철이 든 귀여운 딸 릴라의 이야기를 톡톡 튀는 인물들과 웃음 넘치는 자잘한 사건들과 함께 재미 있게 풀어낸 여성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이스 펜틀랜드(Louise Pentland)는 생활 팁과 뷰티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거이자 패션 디자이너로 유튜브 팔로워 수 370만 명, 트위터 팔로워 19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40만 명 이상이다. UN 양성평등 글로벌 대사로도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글래머(Glamour)」 지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인스타일(InStyle)」이 선정한 '패션 분야 인기 유튜버' 등에 이름을 올렸다. 논픽션 저서 『Life With A Sprinkle of Glitter』는 2015년 여름,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제목 : THE BOOK OF WONDERS
가제 : 놀라운 이야기
저자 : Douglas Trevor
출판사: Sixoneseven Books
발행일: 2017년
분량 : -
장르 : 소설/ 단편 모음



*** "능수능란하게 잘 쓴, 풍성하고 창의적인 이야기" – 조이스 캐롤 오츠*(Joyce Carol Oates)***

책의 영향은 내용을 읽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직접 읽지 않아도 생각지 못한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읽거나 가지고 있는 책을 보고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도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오와 리뷰」, 「뉴 레터스」, 「미네소타 리뷰」, 「미시건 쿼터리 리뷰」 등 다양한 문학 잡지에 개별적으로 실린 아홉 편의 단편소설을 하나로 묶은 이 책에서, 저자는 책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21세기 현대 사회의 변화와 물질적, 문화적 변화의 관점에서 주목한다. 때로는 책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책을 읽거나 직접 쓰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얻는 이점과 좋은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원해진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책이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가까운 사람을 멀리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책에 실린 열 편의 이야기들과 다양한 등장인물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왜곡 없이 똑바로 "읽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기도 하기도 한다. 작가는 책을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책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 그러면서 인간의 취약함을 깨닫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도록 이끈다.

첫 번째 이야기 <엔디미온(Endymion)>은 가까운 지인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절대 이성과 데이트할 수 없을 거라 장담하는 뚱뚱한 여성, 신시아가 등장한다.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그녀는 오랫동안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비서와 바람이 나 무참히 버림 받은 이후로 4년 넘게 새로운 만남을 거부해왔다. 또 다시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모두 사라졌다. 그러는 동안 체중은 점점 더 늘어나 몸 전체가 마치 공처럼 둥근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성과의 데이트는 물론이고 사교 생활을 되도록 피해온 신시아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근 후 찾아간 어느 바에서, 도통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잘 생긴 남자와 만난다. 속옷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조각 같은 몸매, 올리브 색 탄탄한 피부, 껑충 큰 키에 티셔츠 차림을 한 그 남자는 바에 들어설 때부터 신시아에게 남다른 눈빛을 보냈다. 그것이 애정이 섞인 눈빛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신시아는 의아해하지만, 급기야 남자는 일이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산책이나 하자며 제안한다. 늘 시간 약속에 엄격하고 특히 일에 실수라곤 용납하지 않는 신시아는 바로 거절하지만, 오랫동안 꾹꾹 눌러온 외로움이 바를 나서는 남자의 등을 바라보는 순간 급격히 솟구친다. 결국 따라나선 신시아는 남자와 그날 밤을 함께 보내고, 두 사람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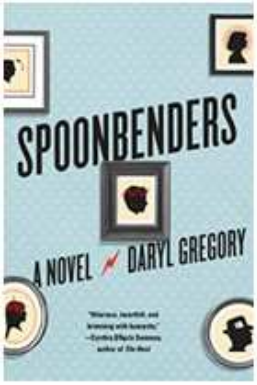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남자, 그저 외로움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더 큰 감정을 느끼는 신시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달의 여신 셀레네가 잠자는 모습에 반해 그만 영원히 잠들도록 만들어버린 양치기 청년 엔디미온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독특한 사랑, 상실, 고통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진다.

이 책의 제목과 동일한 두 번째 이야기, <경이로운 책>에는 귀중한 골동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애너벨과 그녀의 딸, 시모네가 등장한다. 1893년에 처음 판매된 '경이로운 책'을 여느 때처럼 경매에서 구입한 애너벨은 다른 골동품처럼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드넓은 서재 한 켠에 보관하는 대신, 매일 밤 그 책을 무릎에 놓고 무언가를 기록했다. 어린 딸 시모네는 엄마가 다른 물건들은 애지중지 보관만 하면서 그 두툼한 가죽 표지의 책은 일상적인 물건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에 큰 호기심을 느꼈다. 시모네가 학교에 입학하고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자라는 내내 엄마가 의식을 치르듯 매일 저녁 그 책을 펼치고 한 시간가량을 가만히 앉아 기록하는 습관은 계속 이어졌다. 무엇이 엄마에게 저 책을 그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도록 만든 걸까? 주저하다 시모네가 물어봤을 때, 엄마는 그저 아이만 키우는 가정주부로 살기 싫었던 자신에게 골동품 판매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의 길을 처음 열어준 역사적인 날의 일을 <경이로운 책>이 일깨워 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모네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의 감정, 그리고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던 엄마의 비밀은 한참 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드러난다. 그제야 겨우 엄마의 손때 묻은 표지를 열어볼 수 있었던 시모네는 엄마의 필체로 남겨진, 충격적인 고백을 발견한다.

그 밖에도 <소설가와 단편 소설가>, <심오한 생각에 관한 프로그램>, <사서>,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스쿨의 토론 그룹>, <소네트 126>, <수도꼭지>, <술술 쓰는 작가>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글로 쓰인 이야기, 펜으로 종이에 적힌 글자와 그 글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현대 사회의 글, 책, 이야기의 가치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저자 소개>

더글라스 트레버(Douglas Trevor)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조이스 캐롤 오츠, 토니 모리슨과 함께 일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르네상스 시대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단편 모음집 『THE THIN TEAR IN THE FABRIC OF SPACE』로 2005년 아이오와 단편 소설상을 수상하고 2006년 헤밍웨이 재단/PEN 어워드 데뷔소설 상 결선 후보에 올랐다. 장편 『GIRLS I KNOW』로는 2013년 발콘스 소설 상(Balcones Fiction Prize)을 수상했다. 현재 미시건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SPOONBENDERS
가제 : 초능력 가족
저자 : Daryl Gregory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7년 6월 27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SF, 가족, 유머

*** 해외 *11*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중국, 대만,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카탈로니아*)* 판권 계약 체결, 파라마운트 사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계약**
*** 초판 *7*만 *5,000*부 인쇄를 시작으로 미국 *8*개 도시 작가 홍보 투어 진행 중**
*** "엉뚱한 괴짜들로 이루어진 텔레마쿠스 가족의 희망과 욕망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배꼽 빠지게 웃긴 동시에 인간애가 담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Nest*」의 작가 신시아 다프릭스**

유독 재빠른 손놀림을 십분 발휘하여 마술사 행세를 기막히게 해내던 꾀 많은 남자, 테디 텔레마쿠스는 현찰을 두둑이 챙길 수 있다는 기대로 위험한 일에 뛰어든다. 정부가 진행하는 염력의 실체에 관한 실험에 참가한 것이다. 실제로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능력을 지닌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일개 사기꾼의 한 사람으로 끼어든 그는 예상 외의 소득을 올린다. 경제적 소득이 아닌, 평생을 함께 할 짝을 찾은 것이다. 속임수의 달인인 테디와 달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매로 알려진 여자,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새파란 눈을 가진 모린과의 만남은 그렇게 의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금세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첫째 딸을 시작으로 두 아들까지 세 명의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모린의 영적 능력이 워낙 강력해서였을까, 테디와 모린의 아이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아이린, 프랭키, 버디 세 아이들 모두 엄마의 신기한 능력을 조금씩 물려 받은 것이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어메이징 텔레마쿠스 가족'은 이렇게 탄생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말을 꾸미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곧바로 집어내는 인간 거짓말탐지기 아이린, 손대지 않고도 물건의 위치를 옮기는 진짜 염력의 소유자 프랭키, 두 눈으로 보는 세상 외에 미래를 내다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가진 버디까지, 다섯 명의 텔레마쿠스 가족은 특별한 능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초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필 집안의 가장인 테디 혼자뿐이었지만 특유의 연기력과 보통 사람의 눈 정도는 감쪽같이 속일 줄 아는 날랜 손동작은 그가 다른 식구들과 다르다는 의심을 무사히 피하는 무기였다. 하지만 이들의 능력을 내내 수상쩍게 여긴 한 방송인이 제대로 물 먹이려고 계획한 토크쇼에 온 가족이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뿌리며 신나게 흘러가던 가족의 시간은 끝이 나고 말았다.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그 프로그램에서 텔레마쿠스 집안의 신기한 능력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전혀 발휘되지 않은 것이다! 순 사기꾼이라는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수치심과 당혹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사람들의 눈에 최대한 띄지 않

는 곳으로 달아난다. 1970년대 미국을 들썩이게 했던 유명한 초능력 가족은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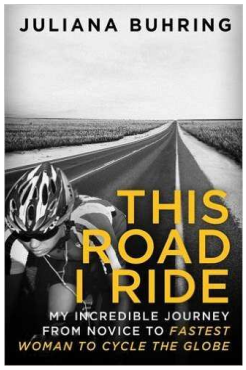
이유를 알 수 없는 방송 사고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가족들에게는 또 하나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 찾아왔다. 남편과 세 아이들을 남기고 모린이 암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연이은 슬픔에 혼란스러워하던 가족들은 하나 둘 제 살길을 찾아 떠나고, 20여 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간다. 그런데 테디가 70대 노인이 되고 꼬마 아가씨였던 첫째 딸 아이린이 30대 주부가 된 어느 날, 텔레마쿠스 집안에 또 한 차례 거센 변화의 바람이 솔솔 일어나기 시작한다. 뜻밖에도 아이린의 외동아들 매티에게서 시작된 변화였다. 겨우 열네 살이 된 매티가 자신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유체이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홀로 매티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린 아이린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테디의 집으로 다시 들어오고, 내내 사기만 치다가 빚더미에 올라 지역 마피아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 프랭키를 만난다. 어릴 때는 염력으로 핀볼 게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더니 커서는 룰렛 도박판의 쇠구슬을 좌지우지하려다 파산해버린 프랭키는 조카에게 유체이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전에 식구들과 누렸던 유명세를 떠올리며 이 놀라운 능력으로 돈을 벌어들일 궁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집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아이린의 막내동생 버디에게도 이상한 변화가 감지된다. 충격 때문인지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뒷마당에서 하루 종일 땅이나 파면서 정신이 나간 행동만 하던 버디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을 잃지 않았고, 조카인 매티와 버디 자신이 관련된 놀라운 사건을 미리 목격한다. 한편, 과거 테디의 사기 행각과 모린의 영적 능력을 알고 있는 CIA는 텔레마쿠스 집안에 태어난 후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전달되거나 사기가 지속되지 않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특히 테디의 외손자인 매티에게 촉각을 곤두세운다. 프랭키는 이 치밀한 감시를 뚫고 계획한 대로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 버디가 예견한 미래는 무엇일까? 수십 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세상의 빛 속에 나오려는 텔레마쿠스 가족의 코믹하고 기발한 고군분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개봉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로열 테넌바움>에 초능력과 영매가 결합된 듯한 독특하고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대릴 그레고리(Daryl Gregory)는 월드 판타지 상(World Fantasy Award)과 셔릴 잭슨 상(Shirley Jackson Award)을 수상한 중편소설 『We Are All Completely Fine』과 『Afterparty』, 『The Devil's Alphabet』 등의 소설을 쓴 작가이다.

NON- FICTION



제목 : THIS ROAD I RIDE
가제 : 내가 달리는 이 길
저자 : JULIANA BUHRING
출판사: Piatkus
발행일: 2016년 5월 19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2012*년 여성 최초로 자전거 세계일주에 성공하고 최단시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며 세상을 놀라게 한 초보 사이클리스트의 회고록**
*** "생생하다. 저자는 자신을 그저 안주하지 않으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놀랍게 만든다." – 북리스트**

어떤 분야든 세계 기록 정도 세우려면 수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나, 꼭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 정말 초능력을 가진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극도의 고난, 인생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직면했을 때, 이제 다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그런 놀라운 인간의 회복 능력이 발휘되는 사례를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다. 어릴 때부터 '신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광신적 종교에 심취한 부모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 집단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자는 좀처럼 깨기 힘든 그 높고 두꺼운 집단의 벽을 깨고 나와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152일 동안 오직 자전거 한 대로 네 개의 대륙을 지나 2만 9,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달리고 또 달려 출발점으로 돌아온 저자의 이야기는 그 전까지 사이클 선수 경험이 있다거나 이 엄청난 도전을 시작하면서 기술적, 의학적,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어쩌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이 도전은 여성 최초로 자전거 세계일주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이 세운 최단시간 기록을 깨고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아직 '신의 아이들'에 소속되어 있던 시절, 마음은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종교생활에서 떠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교 활동을 하러 이끌려간 우간다에서 저자는 평생 함께 하고픈 소울메이트를 만난다. 모험가인 헨드리였다. 금세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이후 몇 년간 가까이서 지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저자의 서른 살 생일이 가까워올 무렵, 헨드리는 아프리카에서 카약을 타다가 그만 물에 빠져 악어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엄청난 절망에 빠진 저자는 모든 걸 포기하고픈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자신을 집어 삼킨 이 거대한 슬픔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기로 결심한다. 사이클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직 여성이 자전거로 세계일주를 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그 최초의 여성이 되기로 마음먹은 저자는 마땅히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도전을 해보고 후원해줄 사람들을 모아 차근차근 기록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초보 사이클리스트는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고작 8개월 여간의 준비를 마치고 나폴리에서 시작한 세계일주를 단번에 성공하고 세계 기록까지 세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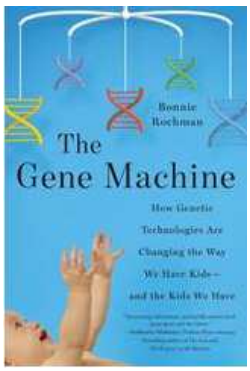
이 책에는 152일간 저자가 유럽 대륙을 지나 미국을 횡단하고 뉴질랜드, 호주를 거쳐 아시아, 터키, 그리스 등 총 18개국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겪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지독한 식중독으로 생사를 오갔던 일, 야생동물과의 사투, 저체온증, 산을 넘다 한밤중에 꼼짝없이 첩첩산중에 갇힌 일 등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은 도전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했지만, 무엇이든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다.

<목차>

시작하면서
디데이
유럽 횡단
길을 잘못 들다
페리 이야기
무지개, 호빗, 그리고 역풍
가미가제 까치들
고된 시간과 친해지다
드디어 아시아!
고독이 남긴 결과
인도의 악몽
터키 사탕
먼 길을 지나 집으로
불가능한 꿈
맺음말

<저자 소개>

줄리아나 버닝(Juliana Buhring)은 사이클리스트이자 작가로 2012년에 자전거 세계일주를 최단 시간에 성공한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현재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살고 있다.



제목 : THE GENE MACHINE
가제 : 유전자 기계
저자 : Bonnie Rochman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17년 2월 2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과학(유전공학)

*** 퍼블리셔스 위클리 '이 주의 책', 뉴욕 매거진 '*2017*년 특별한 지식을 강화해줄 책 *15*권'에 선정**
*** "유전자 검사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딜레마를 탐구한 책" – 뉴욕 리뷰 오브 북스*(The New York Review of Books)***
*** "쉬운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자, 의사, 윤리학자,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워싱턴포스트」, 앨리스 캘러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과학자, 의사는 물론 새로운 생명을 낳기로 결심한 부모들도 아이의 유전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 활용 범위에 관한 논란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태아가 아직 배아 상태일 때 질병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가족 계획의 하나로 보아야 할까, 우생학이라는 섬뜩한 영역으로 슬며시 바뀔 수 있는 시초일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아이가 유전학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의사가 부모에게 말해주어야 할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사실도 다 부모에게 알려야 할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아는 편이 나을까?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실제로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던 저자는 다소 민감하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이 책에서 폭넓게 살펴본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 상황, 그리고 이 변화가 의학과 생물윤리, 의료보건 분야에 일으킨 변화와 더불어 우리가 가족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저자는 인간의 유전체에 담긴 비밀을 풀기 위해 나선 과학자들과 유전자 검사기관의 상담가들, 아이의 유전적 결함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부모들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온 영적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결론을 들어보고, 저자 자신처럼 때로는 깊은 안도감을 주지만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유전자 검사의 결과와 마주한 부모들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전한다. 상염색체의 열성질환을 파악해서 희귀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보인자 검사,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각종 산전 검사와 산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검사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흔히 발생하는 치명적인 신경질환인 테이색스 병은 유전자 검사 덕분에 크게 자취를 감춘 병이 되었다. 이처럼 생사에 영향을 주는 결함, 치명적인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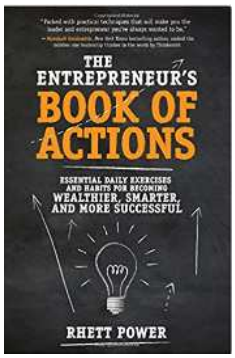
유전자 검사로 가려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결과에 따라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물며 목숨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각종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는 더욱 뜨거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저자는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러한 검사로 얻은 정보가 사람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 삶과 생명의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기준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최첨단 기술에 똑같이 적용되겠지만, 유전자 검사는 현대 의학의 승리일 수도 있지만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유전자 검사가 점차 확대되고 그 결과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부모들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날카롭게 진단한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 테이색스 병을 물리친 유대인들: 임신 전 질병 검사
2. 신을 흉내 내다: 착상 전 유전자검사, 가족의 역사를 다시 쓰다
3. 또 하나의 주홍글씨: 유전자 검사와 중절수술의 관계
4. 유전자의 활성 차단: 다운 증후군의 미래
5. 부모들이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일까? 불확실한 가능성을 해결하려는 노력
6. 개방형 미래와 우리의 권리: 어떤 대가가 따를까
7. 얼룩말 사냥법: 희귀질환의 복잡한 진단 과정을 끝내려면
8. 병에 든 지니: 신생아 유전자분석

<저자 소개>

보니 로크먼(Bonnie Rochman)은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타임」 지 온라인 사이트(Time.com)에서 건강, 육아 부문 칼럼리스트 겸 「타임」 지 작가로 일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MIT 테크니컬 리뷰」,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ENTREPRENEUR'S BOOK OF ACTIONS
가제 : 사업가를 위한 실천서
저자 : Rhett Power
출판사: McGraw- Hill Education
발행일: 2017년 1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경영

*** "저자는 행동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실용적인 기술이 가득한 이 책은 리더, 기업가들을 늘 원하던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리더십 코치 마샬 골드스미스**

*** "지갑과 사업을 모두 두둑하게 만들어줄 책" – *TV*, 팟캐스트 진행자, '*C- Suite Network*' 대표 제프리 세이즐렛**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크건 작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사업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실제로 성장이 실현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어떻게든 출발은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막 싹이 돋아난 사업을 건강하게 키우는 실질적인 방법은 대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업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지식과 인내심, 끈질긴 노력이 제대로,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총 53주로 세분화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업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할 마음가짐,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확립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실제 사례에서 확보한 생생한 교훈과 유용한 지식을 토대로 제시된다.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듯 차근차근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자는 먼저 나쁜 습관을 버리고 도움이 되는 습관을 새로 기를 것을 권한다. 이를 위해 들이는 노력은 최소화하면서 창의력을 더 크게 일깨워 과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 방식이 소개된다. 관리자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주체적으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설계할 줄 알아야 하고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생각 대신 최대한 많은 부분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일에 매이는 것보다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즉 삶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의미와 인생의 목표를 수시로 떠올리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기업가, 관리자일수록 틀에 박힌 사고를 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감과 상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크라우드 소싱과 아웃소싱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의 탄력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일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적재적소에 꼭 맞는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현명한 기업가와 관리자가 해야 할 몫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의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자는 혁신과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 몰입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일상적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아주 작은 일부터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해서 시도할 때 더 큰 변화도 가능해지고,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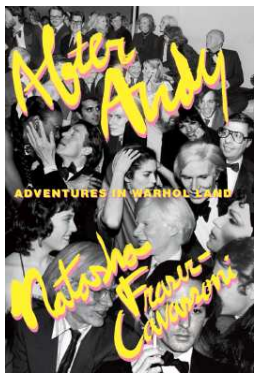
수많은 기업가, 리더들과 만나 리더십 훈련을 이끌어온 경력을 토대로 현재 설정된 목표를 재평가하고 그 목표로 나아가는 현실적이고 꾸준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머리말
1주차: 열정과 목표
2주차: 디딤돌 만들기
3주차: 정신적인 동기 찾기
4주차: 멘토의 정신
5주차: 분 단위로 시간 관리하기
6주차: 리더십의 교훈
7주차: 흥이 넘치는 사무실
8주차: 현실적인 보상
9주차: 고객의 만족
10주차: 성공 전략
(이하 생략, 총 53주차로 구성)

<저자 소개>

레트 파워(Rhett Power)는 「Inc. Magazine」에서 2년 연속 '미국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회사'로 선정된 장난감 회사 '와일드 크리에이션스(Wild Creations)'의 공동 창립자이다. 국무부 국제 강연가 프로그램 소속이자 리더십, 경영 전략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면서 매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Inc.com과 Success.com.에 매달 칼럼을 기고해 왔다.



제목 : AFTER ANDY
가제 : 앤디 워홀, 그 이후의 세상
저자 : Natasha Fraser- Cavassoni
출판사: Blue Rider Pres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워홀을 둘러싼 세상을 아주 세세하고 화려하게, 연대순으로 풍성하게 정리한 책" – 커커스 리뷰**

*** "앤디 워홀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무렵 그가 속했던 무리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찰력과 연민을 담아 실제 사실을 토대로 포착한 저자의 인상적인 목격담이자 회고록" – 『*Holy Terror: Andy Warhol Close Up*』의 저자 밥 콜라첼로**

1987년 4월 1일, 뉴욕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대중예술의 대부'라 일컬어지는 앤디 워홀의 장례식이 거행된 열린 이날은 예술계의 거장이 떠나간 슬픔을 애도하는 자리인 동시에 저명한 문화계, 예술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이기도 했다.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기 불과 4일 전, '워홀 스튜디오'에 채용된 저자는 나중에야 자신이 정식으로 직원 계약을 체결하고 꼭 12시간 후에 그가 뉴욕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영국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워홀과 함께 일하는 영국 여성을 사내에서 장난스레 지칭하던 '잉글리시 머핀'이 된 저자는 이 특별한 회고록에서 그의 사망 직전에 구성원이 된 '워홀 월드'의 내부에서 바라본 앤디 워홀의 일생과 그가 남긴 영향, 사망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저자가 '워홀 랜드의 모험'이라 지칭하는 그 매력적인 세상 속에는 패션계 아이콘이라 일컬어지던 인물들부터 영화배우, 전설로 여겨지는 록스타들,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자들로 가득하다. 앤디 워홀의 모든 사업을 관리했던 프레드 휴즈, 시각예술가 브리짓 베를린, 앤디 워홀 재단의 공동 창립자인 빈센트 프레몽 등 가장 가까이에서 앤디 워홀을 지켜보고, 함께 사업을 키워갔던 인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저자는 열여섯 살에 처음 앤디 워홀을 만나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뉴욕으로 건너온 후 워홀 스튜디오에 입성했다. 20세기 말, 영국의 꽤 유명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자는 십대 시절 반항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내 온갖 화려한 파티와 코카인에 젖어 살았다고 털어 놓는다. 당시 유명한 록 뮤지션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던 저자는 열일곱 살에 믹 재거와 만나기도 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도 이야기한다. 런던과 헐리우드, 뉴욕, 파리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던 저자는 영화계, 패션계 유력한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패션 저널리스트로서의 진로를 확고히 하고자 '워홀 랜드'로 들어왔다. 주급 5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저자에게 주어진 일은 앤디 워홀의 MTV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알려진 주인공을 인터뷰하는 일이었다. 인터뷰 대상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 저자는 2년

간 앤디 워홀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수많은 명사들, 그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과 교류했다.

한때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던 워홀의 사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저자는 앤디 워홀이 사망한 후 일어난 불화와 갈등,「인터뷰」매거진을 비롯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사업과 작품들의 처분과 정리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앤디 워홀의 소장품 경매에서 벌어진 기록적인 거래가, 일기의 출판 과정 등 워홀의 팬들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일들을 상세히 전한다. 더불어 세상을 떠난 후에 처음에는 로스앤젤레스로, 나중에는 유럽 전역으로 더욱 넓게 퍼져 간 워홀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미국의 예술계, 대중문화계는 물론 패션, 사회 전반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인물에 관한 가까운 사람들의 시각과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신이 가득한 독특한 회고록이다.

<목차>

1. 앤디의 장례식
2. 초창기
3. 스타일에 관한 초기의 깨달음
4. 휴가철 별장
5. 세인트 메리 애스컷 학교
6. 해롤드와 안토니아의 만남
7. 펑크록이 영국에 남긴 영향
8. 대처 시대, 초기의 들끓던 환희
9. 마이클 제이와의 혼란스러운 관계
10.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의 기쁨
(이하 생략, 총 28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나타샤 프레이저 카바소니(Natasha Fraser- Cavassoni)는 패션 저널리스트이자 사진작가,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하퍼(Harper)에서 발행한 「Bazaar」유럽 에디션 편집을 맡았으며 이후 「Women's Wear Daily」와 「W magazine」에서 기자로 일했다. 샤넬 스튜디오에서 칼 라거펠트의 조수로도 일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는『Sam Spiegel』,『Tino Zervudachi』,『Dior Glamour』, 『Monsieur Dior』, 『Loulou de la Falaise』 등이 있다.

제목: NAKED OR COVERED

가제: 벗느냐 가리느냐

저자: Mineke Schipper

출판사: Prometheus(네덜란드 원서)

발행일: 2015년

분량: 277 페이지 (원서)

장르: 역사/문화

* **"저자는 인류학자의 통찰력, 소설가로서의 문학적 재능, 탄탄한 상식을 토대로,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대한 인류의 역사적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생동감 넘치고 심도 깊은 연구 결과가 담긴 시기적으로 꼭 맞는 책이다." – 오리건 대학교, 유네스코 크로싱 연구소*(Crossings Institute)* 대표 스티븐 샌크먼**
* **"시대에 따라 인류가 몸을 어떻게 가리면서 살아왔는가에 관한 사실과 허구의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정리한 흥미로운 책" –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존 맥스웰 굿시*(J.M. Coetzee)***

인간이 네 발 대신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후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 하나로, 서로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무렇지 않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사바나 곳곳을 누비던 인류가 그런 자신의 몸과 상대방의 몸이 부끄러워지고,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인류가 의복을 입기 시작한 건 추위를 이기고 자신을 좀 더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만들고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수치심, 헐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의복이 탄생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몸의 중요 부위를 가려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부적절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생식기가 돌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먼저 끈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든 가리개를 허리에 둘러 앞부분을 가리다가 나중에는 텐트처럼 생긴 일종의 가운을 걸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서서히 몸에 문신을 하고, 색칠하고, 장신구를 두르고,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방식으로 몸을 치장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이후 서식지가 열대 우림을 벗어나 더 서늘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동물의 가죽으로 신발과 옷을 만들었다. 문화와 인류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는 수백 년 동안 나체로 다니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인류가 이렇게 처음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것, 이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난 종교적, 사회적, 의학적인 무수한 기준과 잣대로 반드시 가려야 하는 신체 부위가 생겨난 과정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한다.

여성의 과감한 노출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있는가 하면, 눈만 빼고 온몸을 가려야 하는 문화권에 사는 여성들은 민소매나 발목을 드러낸 다른 나라 여성만 봐도 깜짝 놀란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에서는 여성의 목 부위를 반드시 가리도록 했고,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발꿈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 반대로 중동 지역에서는 발꿈치는 드러나도 되지만 머리카락은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신체 부위로 여긴다. 신대륙을 찾아나선 유럽의 탐험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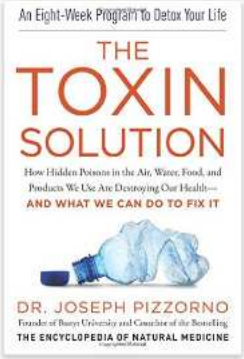
은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원주민들을 보고 화들짝 놀랐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뜸 자신들의 땅에 찾아온 이 침입자들이 겹겹이 옷을 껴입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과 달리, 한때 유럽에서는 남자들이 여성들만큼이나 화려하게 몸을 치장하고 머리를 손질하는 문화가 횡행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남성이 미를 추구하는 것과 '남자다운' 차림새를 하는 것이 엄격히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몸을 가리고, 꾸미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기준이 국가, 지역, 문화 별로 다양하게 형성된 만큼 세계화 시대에는 무엇이 '정상적인' 혹은 '평범한' 옷차림인가에 대한 혼란과 제각기 다른 견해가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했다. 저자는 날카롭고 정확한 시선으로 인류의 의복 문화와 몸을 가리거나 드러내는 행위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심도 깊게 분석한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나도 상반된 시각과 그 뿌리를 추적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벗느냐 가리느냐
1.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몸
2. 끈 하나에서 화려한 치장까지
3. 흥분
4. 불가능한 타협
5. 목욕과 수영
6. 몸을 가린 역사와 종교의 관계
7. 드러내는 것을 향한 저항, 저항의 수단으로 벗기
8. 세계화된 세상에서 벗는 것, 그리고 가리는 것
9. 같은 지구에 함께 산다는 것

<저자 소개>

미네케 쉬퍼(Mineke Schipper)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이문화 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이지리아, 케냐, 짐바브웨, 중국 등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네덜란드와 국제 사회, 학계 안팎의 문화적 연결점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 받아 네덜란드 국가훈장(Officier in de Orde van Oranje- Nassau)을 수여 받았다. 저서로는 『Imagining Insiders: Africa and the Question of Belonging』(1999)와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Her Never Marry a Woman with Big Feet』(2004) 등이 있다.



제목 : THE TOXIN SOLUTION
가제 : 독성물질 솔루션
저자 : Joseph Pizzorno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7년 2월 2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건강

* **"저자는 수십 년간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성질환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과 접촉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알려준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그레인 브레인』의 저자, 데이빗 펄머터**
* **"자연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저자는 환경과 음식의 독성물질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최신 연구결과와 함께 설명한다. 이 악영향을 뒤집고 건강을 회복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다." – 전(前) 백악관 대안의학 정책위원회 의장, 의학박사 제임스 S. 고든**

현대 의학과 치료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한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 성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학이 덜 발달했던 시대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뭐가 문제일까? 인체와 건강의 미스터리한 기전과 원리는 더 많이 밝혀지고, 한때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질병도 말끔히 치료하는 기술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대부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더 늘어났을까? 20세기 초반에는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결핍 혹은 불균형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부족하면서 설탕은 잔뜩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지방 중에서도 몸에 해로운 지방만 많이 함유된 식품들이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60여 년 전부터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방사선, 전자기장, 오염물질의 폭격이다. 자연의학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최근에야 막대한 영향력이 제대로 밝혀진 이 수많은 독성물질이 현대인의 건강에 일으킨 무서운 결과와 인체의 놀라운 회복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인 독성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셀 수 없이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과의 접촉을 하루라도 빨리 차단하고 이미 우리 몸 속에 켜켜이 쌓인 이 해로운 물질을 깨끗이 배출하는 '디톡스' 전략과 정화된 상태를 오래 지속하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식, 식생활 전략을 함께 제시한다.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두가 꿈꾸는 일이다. 저자는 독성 물질에 인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칫 유입되더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누구나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이미 축적된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8주 프로그램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음식과 수많은 생활용품에 슬며시 첨가되거나 안전한 물질인 것처럼 함유된 독성 물질을 피하는 방법, 손상된 위장 기능을 되살리고 해독에 적합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 해로운 물질이 몸에 유입되었을 때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신체 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이 이 8주 프로그램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원래 인체는 뛰어난 해독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독성 물질이 한꺼번에 유입되고 다 배출되기 전에 축적되는 바람에 대부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이것이 만성질환은 물론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저자는 인체의 이 귀중하고 놀라운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독성 물질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알려준다.

<목차>

1장. 독성물질은 우리 건강을 어떻게 망치고 있나
2장. 독성물질이 축적되는 이유
3장. 순탄한 출발을 위한 2주 다이어트
4장. 위장 청소
5장. 간 회복
6장. 신장 회복
7장. 전신 집중 디톡스
8장. 건강하게, 독성물질 없이 살기

<저자 소개>

조셉 피조르노(Joseph Pizzorno)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자연의학, 통합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이다. 미국 최초의 자연의학 전문 교육기관인 바스티어 대학교(Bastyr University)를 설립하고 22년간 운영해 왔다. 200만 부 이상 판매된 『The Encyclopedia of Natural Medicine』과 『Textbook of Natural Medicine』을 공동 집필했다.